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1. 배휴, 어디 계시오

배휴는 당시 제 이름을 잊었는데 襄相當時忘却名 스님이 불러주어 다시 성성해졌네 被人喚及又醒樞 포태에 생기지 않은 날에는 不知未具胞胎日 누가 감히 성령을 건성으로 대충 말하랴 誰敢塗糊此性靈

또 물었다. "어기에 선승은 없소?" "예, 희은이라는 수좌가 있는데, 아마 선승 갑습니다." 이에 배상국이 선사들 불러서 다시 물었다. "초상은 불만한데, 큰스님은 어디

정말 어디에 계시오. 한 번 다그침에 배휴가 무심인 일심, 자성본원에 몰록 합일 된다. 이것을 <선문염송>에는 단지 언하 영지(言下領旨), 말 아래 종지에 닿았다. 영회(靈會)라고 가볍게 적고 있다. 이것은 바로 가벼울 대로 가벼워져 아무런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니 자성본원, 무상대도, 본래면목, 일심무심이다. 앞의 계승, 1행은 오랜 관습과 합리에 의해 자성본원에 두터운 딱지가 앉아 갈 무리 되어, 본래 청정한 이름을 망각하고 실아감을 말하고, 2행은 황벽이 존상의 이름에 배휴라 부른 것은 일제만들의 본래 이름을 부른 것. 곧 단말파의 진언인,

은 다시 망각되지 않으니, 그나 나나 그대나 오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2행에서 '불러주어서 다시 성성해졌네'라 한 것은 다시 한 번 본성을 깨우쳐 주어서, '다시 성성해졌다(又醒樞)'라고 불인원이 읊은 것은 노파심임을 알 수 있다. 3행과 4행에서 "포태에 생기지 않은 날에는(不知未具胞胎日) 누가 감히 성령을 건성으로 대충 말하랴(誰敢塗糊此性靈)"라고 노래한 것은 '어머니 배속에 '그대'나 '나'나 생겨지지 않은, 자성본원이니, 바로 기독교(基督)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의 앞이다. 이러할진대 '누가 있어 이 소식에 감히 입을 뿔 수 있을까보나.' 이 지리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도, 천하의 선지식도 입을 뿔지 못하고 말없음(無言)도 묻지 않습니다 <선문염송>권1 16칙 '양구' 하는 '외도의 질문에 침묵(良久)' 하였고, 달마도 양무제의 질문에 '모르오(不識)' <역암록> 1칙 '확언무성'라 했을 뿐이다. 뒷날 천둥같이 위의 선회를 들어(諸) 방대한 손에게 '배상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 후, 양구했다가 자답했다. 앉아서 자주 술 권한다고 이상히 생각 말게(莫怪坐來頻勸酒) 해어진 뒤 그대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제 自從後復見君稀 착어: '만나는 곳마다 그, 내가 없네.

황벽과 배휴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배휴의 무심으로 자성본원에 환연 제회하는 이야기와 배휴가 깨진 이야기를 읽고 마하반야바라밀보지(摩訶般若波羅密本地)를 가름해보자. 어느 날 배상국이 들어왔다가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이오?" "큰스님들의 초상입니다." "초상들은 불 만만한데 큰스님들은 어디에 계시오?" 하니 원주가 말을 못하게, 배상국이

오랜 관습과 합리에 의해 청정한 이름 망각한 배휴 황벽의 '어디 계시오?' 다그침이 본성 다시 일깨워

에 계시오?" 선사가 "상공"하고 불렀다. 배상국이 대답하자 선사가 말했다. "어디에 계시오(在甚麼處)?" 이에 배상국이 말끝에 깨달았다(言下領旨). <선문염송> 권10 393칙 '形儀' 황벽이 불렀다. 배휴를 불렀다. 허공을 불렀다. 자성본원을 불렀다. "자, 어디 계시오(在甚麼處)?"

'배휴'하고 부르니 이미 자성본원에 결합된 배휴는 단번에 이 도리를 간파한다. 앞의 선회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자성을 견성한 배휴의 성능은 가히 현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어서 번뇌 망상의 사슬에 포박당할 이유가 없다. 본래 '배휴'나 '우리'나 '그대'나 '나'나 있을 것 없는 본래의 참 얼굴을 한 번 본 뒤에 는 잊혀지지 않으니, 그렇다. 한 번 깨침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유점사 식해김치

요사이 널리 알려진 가지미식해, 십조개식해 등등이 사찰에서 먼저 전해 내려와 발전된 음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사찰, 특히 산중 김치가 위치하고 있는 사찰의 겨울은 너무나 춥고 길

그중에서도 식해는 남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입니다. 배추식해, 우영식해, 더덕식해, 연근도라지식해, 청각파래식해 등 다양한 식해를 북한의 사찰에서는 담가 먹어왔고, 그 맛 또한 독특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이번 주부터 몇 주

북한 사찰서 식해 요리 즐겨 애용

추운 날씨에 몸에 열 내는 보양식

하지만 동안거를 나는 대중스님들에 걸쳐 북한 내 비타닌 섭취를 위해 야채를 먹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는 역시 김치가 최고로 꼽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더 다양한 김치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북한 사찰에서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한 번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워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찰의 식해음식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배추식해김치입니다. 이맘때쯤 담아서 겨울 내내 먹는 음식으로 영양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몸을 열을 내게 하는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배추식해김치는 북한 유점사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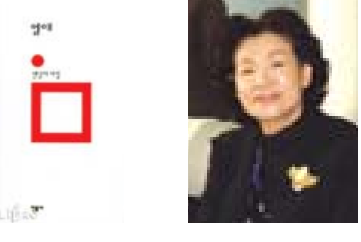


배추식해김치

재료: 배추, 무, 메주, 도라지, 더덕, 우영, 연근, 고춧가루, 통깨, 생강, 엿기름, 새송이버섯, 소금 만드는 법 ① 무, 도라지, 더덕, 우영, 연근, 새송이버섯을 중간 정도의 채로 썰어서 고춧가루로 버무려 놓는다. ② 메주는 3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담가서 푹 불린 다음 소쿠리에 건져서 찜통에 넣고 푹 무르게 찌킨다. ③ 생강은 다져놓는다. ④ 엿기름은 채로 쳐서 가루를 받아둔다. ⑤ 무, 더덕, 도라지 등 채 썰어서 고춧가루에 버무린 것과 식혀놓았던 메주 엿기름 소금 생강즙을 넣고 버무린다. ⑥ 소금에 절여 놓았던 배추를 건져서 어느 정도 물을 빼고 배추포기 사이사이에 버무려 두었던 식해음념을 넣어 김치를 담는다. 항아리에 넣어서 발효시켜 먹는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열애 신달재민음사, 2007년 값 7000원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도 '수행'

1943년 경남 거창 출생인 신달자 시인의 열두 번째 시집 <열애>에도 불교적 상상력이 풍부하다. 시집의 첫 시 '소'에서 "사나운 소"는 시인 자신이다. 이런 자신이 지금은 늙어서 살이 늘 어지고 졸린 눈을 깜빡이는, 죽음이 가까운 운명에 처해있다. 포장마차를 암자에 비유한 절정인 '저 거리의 암자'는 2007년도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도시노동자들은 포장마차에서 "잡다란 번뇌를 싣고 내리고/ 구슬픈 노래를 잔마다 채우고/ 빗된 농담도 잔으로 나눈다." 포장마차에서 "거리의 아들이 질을수록/ 진탕으로 울화가 짙은 사내들이/ 해고된 직장을 마시고 단칸방의 갈증을 마신다." 시행에서 "젓가락으로 집던 산 낙지가 상 위에 떨어져/ 온 몸으로 문자를 쓴다는 감각적 묘사가 탁

월하다. 시인은 "비워진 소주병이 놓인 플라스틱 작은 화경" 거리는 이곳을 "한 채의 묵묵한 암자"로 비유한다. 조금씩 비워지는 잘 익은 포장마차는 한 채의 묵묵한 암자입니다 새벽이 오면 포장마차 주인은 밤새 지은 암자를 거둬받는다 손잡이나 주인 모두 하룻밤의 수행이 끝났습니다 잠을 설치며 속을 풀이던 배모양의 조바심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암자를 가슴으로 옮기는데 속을 후려치는 하룻밤이 걸렸습니니다 음감정 한 페이지가 겨우 넘어갑니다. - '저 거리의 암자' 부분 시 '여명'에서는 밝아가는 새벽의 모습을 "점점 사라지는 옷자락이 허공

을 뒤는" 것으로 묘사되며, "새벽을 데려오는 일애/ 몸을 구부리는 예불이 삼천 배로 지나갔다"고 한다. 시인은 '범종친다'에서 어떤 한계로 상징되는 '벽'을 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범종을 치는 것으로 비유한다. 여기서 벽은 여성이 갖는 "뻣뻣" 무엇을 상징한다. 화자는 결국 뻣뻣한 무엇이 고비를 넘기 위해 차라리 벽과 놓는 것을 배워야겠다고 한다. '사막의 성찬'에서 화자는 속초 바다와 저녁 겸상을 하면 밤상에 바다의 속사정이 올라오고, 설악산과 저녁 겸상을 하면 밤상에 구구절절 한 산 속의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백담사와 저녁 겸상을 했더니 상이 비었다고 한다. 기발한 상상이다. '사리'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몸"에 사리를 두 개쯤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다. 물론 하나는 몸을 태웠을 때 생성되는 사리가 되고, 시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사리는 태우면 사라지는 '눈'인 것이다. '천 년 느티나무'는 내소사 대웅전 앞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이는 "내소사 앞들의 부처"와 "내 어머니 부처"로 비유한다. 대구 영천 거조암 오백나한을 구경한 경계를 시로 구성한 '운수좋은 날'은 화자와 나한, 그리고 나와 M 시인 사이의 대화식 구성을 통해 재미를 준다. 불날 부처사 여행에서 얻은 감흥을 진술한 '부처사'에서는 "부처사를 본 것이 아니고/ 내내 나를 보았다"는 인식에 이른다. 시 '만해서'는 실제 인물인 무산 스님의 인상을 시화하고 있다. 시인은 불날에 피는 개나리꽃을 손금으로 만든 아기부처로 비유하기도 한다.

거사선(禪)의 리더들 ⑨ - 대원 문재현 거사편의 기사를 정정합니다 2007년 11월 21일(수요일)자 현대불교신문의 기사 <거사선(禪)의 리더들 ⑨ - 대원 문재현 거사편의 16면 하단의 대원 선사님의 공안 법문 내용에 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이안 존자가 가섭 존자에게 질문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 존자에게 금강가사를 전한 일 이외에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가섭은 "아난이예"라고 불렀다. 아난이 "예"라고 대답하니, 가섭은 "문 앞의 활간대를 꺾어버려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가섭이 "아난이예"라고 부른 것은 바로 들어 보이는 도리건만 아난이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문 앞의 활간대를 꺾어버려라." 라고 하여 재차 들어 보였다고 대원 거사는 법문하였다. 그러나, 용성 선사와 정강 선사의 선문답에서 용성 선사가 정강 선사에게 "어떤 것이 제일구나?"하고 물었을 때 정강 선사가 "예"라고 한 것은 아난이 "예"라고 대답한 것과는 달리, 제일구를 곧바로 들어 보인 답이라고 하였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문집 <영원한현실> 26, 29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료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드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장례에서 이장, 택일, 제사까지 확 트이는風水 꼭 잡히는地理 풍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 이 한 권으로 풍수는 끝난다!! 풍수책의 결정판 쉬운 문장, 많은 그림, 현대적 용어로 설명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풍수 책! 사람들이 풍수를 배워서 명당에 묘를 쓰고 집터를 잡아 행운을 얻게 하는 잡술서가 아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히려한다. 또한 이 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많은 이론들을 제시했으므로 별도로 다른 풍수서적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독자들도 하여금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랄 뿐이다. 창환 풍수사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신국문 752호 값 30,000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보살 기법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든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